

서울 서대문형무소, 제주 4·3투어...어두운 역사서 빛을 찾다

인권도시 광주
다크투어리즘에 미래 있다

<중> 국내의 성공사례서 해답 찾는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전쟁과 학살, 참사 현장이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역사교훈여행) 명소로 재탄생하고 있다. 국내외 다크투어리즘 명소들은 역사 현장을 오롯이 보전해 비극의 순간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 것이 공통점이다. 비극적인 역사 현장을 체험하고 추모, 아픈 역사를 되풀이 없겠다는 반성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된 것도 특징이

체계적 프로그램에 잇단 발길...제주는 조례로 5년마다 육성계획 마련
폴란드 아우슈비츠수용소·뉴욕 9·11메모리얼파크 등 세계적 명소로

다. 국내 다크투어리즘 명소로는 제주도와 서울이 꼽힌다. 이 중 제주도는 4·3 사건을 중심으로 다크투어리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제주 곳곳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제주도민 3만여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이다. 제주 4·3 평화공원과 4·3 기념관, 600여곳의 4·3 유적 등을 관광자원화 해 하나로 이었다. 관덕정, 곤울동, 다랑쉬굴, 큰넙재 등 4·3 학술터를 원형대로 보존한 뒤, 이를 돌아볼 수 있는 4.3길을 조성하기도 했다. 일제 군용비행장인 알뜨르 비행장부터 일제 진지

동굴, 조천만세동산 등 일제강점기 유적들도 투어에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다크투어리즘을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년마다 다크투어리즘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제 탄압의 상징인 서울 서대문형무소도 대표적인 다크투어리즘 명소로 꼽힌다. 서대문형무소는 남산 '국치의 길'부터 역사관까지 이어지는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역사관에는 당시 서대문형무소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했으며, 독립투사들이 겪었던 고문 장면을 보

여주거나 고문도구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등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꾸며졌다. 재소자들의 하루 일과 등 형무소 생활을 재현하고, 생존 애국지사의 육성 증언을 들으며 사형장을 직접 들어가 보는 등 경험을 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다크투어리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잔혹상을 보여주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가스실과 죽음의 벽, 고문실 등을 포함해 전체 28동을 보존 및 공개하고 있다. 아우슈비츠는 일반 투어, 일일학습투어, 심화학습투어 등 투어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반성과 참회의 장소로 삼았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9·11 메모리얼파크도 매년 관광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는 다크투어리즘 명소다. 옛 세계무역센터 1, 2번 건물이 있던 자

리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9·11 테러로 사망한 이들을 기리고 있다. 9·11 메모리얼파크 박물관은 붕괴 순간을 기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시 비상구로 쓰였던 건물 내 계단을 복원하거나 당시 뉴스 모습, 희생자들의 음성 기록, 피 묻은 하이힐이나 불탄 방화복 등 현장 유품, 건물에 깔렸던 소방차 등을 전시해 참사 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또 베트남 꾸찌터널은 베트남 1만 7000명이 13년간 생활했던 지하 땅굴을 복원해 전쟁 참상을 체험할 수 있게 했으며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현장은 폐쇄된 원자로 주변과 폐허가 된 마을을 돌아보며 원전 역사를 듣는 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밖에 캄보디아 프놈펜 킬링필드, 일본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 중국 난징대학살기념관 등이 다크투어리즘의 성공 사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라임 사태' 김봉현 구인영장...구속 기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말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2017~2018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4일 그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에 앞

서 그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심사는 당초 지난 16일로 잡혔으나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현직 검사 술 접대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광주 스톡킹 범죄 신고 급증 2019년 79건→2021년 301건

광주에서 스톡킹 범죄 신고 건수가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9건이던 스톡킹 관련 신고는 지난해 301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집계된 스톡킹 관련 신고 건수는 8월까지 414건을 기록해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스톡킹 처벌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난해 301건의 신고 중 형사 입건된 사례는 38건에 그쳤으며, 입건자 중 17명만 불구속 송치됐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과 2019년에도 스톡킹 관련 신고가 있었으나, 처벌은 경범죄 관련 법으로 처벌돼 형사 입건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에는 스톡킹 처벌법이 적용돼 414건 전체 신고 건수 중 191건이 형사 입건됐으며 5명이 구속 송치, 75명이 불구속 송치돼 본격적으로 처벌이 진행됐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경찰,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증가 광주·전남 5년간 5000건 넘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 경찰이 범죄 피해자를 '안전조치'한 사례가 매년 급증하면서 최근 5년간 5000여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는 7만 9000여건 이상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조치다. 기존에는 '신변보호'라는 용어로 불렸으나 지난 1월 12일부터 변경됐다. 광주경찰청은 2018년 246건, 2019년 391건, 2020년 415건, 2021년 628건, 2022년 7월까지 431건 등 2111건의 신변보호 조치를 내렸다. 또 전남경찰청은 2018년 263건, 2019년 559건, 2020년 530건, 2021년 943건, 2022년 617건 등 2912건의 보호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독감 무료 예방접종 준비됐어요

독감 무료 예방접종 하루 전날인 20일 광주 북구보건소 접종실에서 감염병예방팀 직원들이 관내 의료기관에 추가 공급할 백신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시의원 아들이 의사들에 90억 빌린 뒤 잠적"

의약품 납품 유통업체 운영 여수경찰, 고소장 접수 수사

여수시의원 아들이 투자 명목으로 여수지역의 사들에게서 수십억원의 돈을 빌리고 도주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의약품도소매업체 대

표인 40대 A씨가 중소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90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 4건이 접수됐다. A씨는 현재 여수시의원의 아들로 병원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납품을 전담하는 유통 중간단계 업체인 '간담업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의사들에게 "곧 요양병원을 차릴 계획이니 내게 투자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렸다. A씨는 병·의원 등과 의약품을 거래하면서 의사들과 신뢰를 쌓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고소장이 더 접수될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액수와 추가 피해자를 조사 중이다. 또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돈을 빌린 뒤 도주·잠적해 아직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회사 사정상, 매매

- 1. 대인동 156평, 신안동 176평
-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문의. 010-3605-5000

투자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합,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